

2012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66

요한계시록에서

(15)

새 예루살렘에서 빛을 지닌 분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함

성경: 계 21:10-11, 23-24, 22:1-2, 5, 앵 1:10, 22-23

- I. 계시록 21 장과 22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등이시며, 빛을 지닌 분이신 그리스도를 그분 안에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표현하는 것을 볼 것인데, 민족들은 그 빛 가운데 행할 것이다.
- A. 새 예루살렘에는 성 전체를 통해서 신성한 빛을 비추어내기 위해서 피조되지 않은 빛인 하나님의 영광과 등이신 어린양이 계신다—21:11, 23, 22:5 하.
1.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현인데, 그리스도 안에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새 예루살렘 도처에서 신성한 광채를 비추어내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이 빛은 우리를 적실 것이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자신 안에 잠겨질 것이며,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의 표현이 될 것이다—21:11, 요일 1:5, 앵 5:8.
 2. 하나님의 목적은 전적으로 우리가 단체적인 실체로 함께 건축되어 거룩한 성이 되는 문제이다. 빛이신 하나님은 영광이신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등이신 어린양 속으로부터 신성한 빛의 산광기(散光器)인 성을 통해 비추심으로서 영광이신 그분 자신을 표현하신다—앵 1:11, 3:11, 계 21:10-11, 23.
 3. 새 예루살렘에는 빛과 등과 산광기(diffuser)가 있다—11 절, 23.
 - a. 빛은 등 안에 있고, 등은 산광기 안에 있다—요 14:20.
 - b. 빛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등은 아들 하나님이시며, 산광기(散光器)는 그리스도의 몸 곧 새 예루살렘으로서 새 예루살렘 둘레에 사는 사람들인 민족들에게 신성한 빛을 비춘다—계 21:24.
 - c. 신성한 빛이신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시며, 이 비춤은 성을 비추어 성 전체가 빛을 지닌 존재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지니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 되는데, 이 표현이 하나님의 목표이다—10-11 절.
 - d. 결국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신성한 빛의 산광기가 되어 성 바깥의 민족들에게 신성한 빛을 방사할 것이다—24 절.
 4. 미래에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안의 등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빛으로서 비출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2 절, 11, 23.
 5. 민족들은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비추는 빛에 의해 행할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전체가 산광기인 구속받은 이들을 통해서 구속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춤 아래 있을 것임을 가리킨다—21:2-4, 23-24, 11:15.
- B. 새 예루살렘이 중심으로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아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1 장 10 절의 완전한 성취가 될 것이다.
1. 새 예루살렘의 정상에서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 내용으로서 계신 하나님과 함께 머리아시다—계 22:1-2.
 - a. 그분으로부터 생명 나무와 더불어 생명의 강이 흘러 그분의 모든 아들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신 구속된 이들은 생명으로 충만된다—21:7.
 - b. 성 전체는 빛인 이 생명을 비추어 내고, 온 우주를 대표하는 민족들은 이 성의 빛 안에서 행한다—24 절.

- c. 그리스도께서 성의 정상에서 머리가기 때문에, 만물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몸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아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엡 1:10, 22-23, 계 21:2.
 - d. 만물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아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엡 1:10, 22-23:
 - (1)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완결이다—11 절, 3:11.
 - (2) 이러한 만물의 통일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이 될 것이다.
 - e.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빛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안내하고 질서있게 지킬 것이다—계 21:11, 23, 22:5.
2. 새 예루살렘을 통해 발산되는 빛은 만물이 빛 안에서 빛 아래 통일 되도록 만물 위에 비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물은 머리 아래 통일될 것이다—엡 5:8-9, 13-14, 1:10.
3. 만물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머리 아래 통일될 것이다—22-23 절.
- a.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아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만물을 생명의 빛 안으로 이끌어 오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 안에 살고 그분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비추도록 허락해 드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요일 5:11-12, 요 1:4, 8:12, 엡 1:10.
 - b. 머리의 생명이 교회, 곧 그분의 몸을 통과하고 만물에 이르게 될 때,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아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된다—요 1:4, 8:12, 엡 1:10.
4. 하나님께서는 수행하실 과정이 있다. 그분께서 교회 안에서 하실 일이 아주 많이 있다—2:10.
- a.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고 이 생명의 통제를 받게 되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넣으실 필요가 있으시다. 그럴때 우리는 하나와 조화를 갖게 될 것이며, 이것은 진정한 건축이 될 것이다—3:16-17 상, 5:8-9, 4:13, 16.
 - b. 우리를 통한 신성한 빛의 비춤 아래에서 만물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헛된 것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롬 8:18-21.
 - (1)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은 새 예루살렘의 비춤이다. 새 예루살렘의 이 비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자 영광이다—계 21:10-11.
 - (2) 모든 민족들은 이 비춤 아래로 이끌려올 것이며, 그들은 이 빛 아래에서 행할 것이며, 이 빛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사 4:2.
 - (3) 만물은 교회의 하나를 통해 비추는 그 빛에 의해 빛비춤 받을 것이며, 교회의 하나의 빛 안에서 모든 이가 여호와를 알 것이며, 모든 이가 머리 아래 있게 되어 하나에 이를 것이다—11:9, 요 17:21-22, 엡 4:13.
 - c.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와 우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달려있다—3:16-17 상.
 - (1)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서 우리 안으로 넣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름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으로 침투되고 적셔질 필요가 있다—요일 5:11-12, 20.
 - (2)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비추시고 우리를 통해서 발산되시도록 허락해드릴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 자신을 발산시키실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성숙하게 될 것이다—엡 3:16-17 상, 4:13, 5:8.

II. 계시록 21 장 23 절은 그리스도께서 중심과 전체이심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다.

- A.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시며,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비추신다—10-11 절.
- B.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의 중심과 둘레와 모든 것이실 때, 빛을 지닌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는 영원 안에서 중심과 전체이실 것이다—23 절.